

첫 단편소설집 '딸꾹질' 낸 본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송은일 씨

“이기적 사랑서 느껴지는 환멸 담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송은일(42)씨가 처음으로 단편 소설집 '딸꾹질'(문이당)을 펴냈다. 지난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서 소설 '꿈꾸는 실낙원'이 당선돼 등단한 뒤 '도둑의 누이'(2004년), '소울메이트'(2002년) 등 장편소설 6편을 썼지만 소설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딸꾹질을 멈춘다. 송씨는 “주인공의 딸꾹질이 멈춘 것을 두고 딸을 보듬어 안아 도란도란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해피엔딩이라 생각해서 안 된다”며 “소설은 거기서 끝나며 나머지는 독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상처를 안고 사는 모녀가 만남에는 성공했지만 그 상처가 치유됐느냐에 대해선 작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37도 2부'에도 인간과 세계에 대한 냉정한 작가의 시선은 이어진다. 주인공인 이혼녀 조현은 6년 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소박을 맞고 의사 남편과 이혼한다. 이혼한 뒤에도 조현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와 현재 부인에게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우려는 전 남편, “37도 2부의 체온을 가진 새 숙주를 찾아야 할 때”라며 불륜 사실을 털어놓는 단짝 친구, 조현이

임신 사실을 말하자 기겁을 하며 달아나는 유부남 등 소설 속 인간 군상들은 비겁하지만 사실적이다. 송씨는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스캔들” 식인 요즘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랑 방식에서 느껴지는 환멸을 그리고자 했다”며 “무의식 속에 살아 있는 현실에 대한 반항쯤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1회 광주일보 문학상을 받은 '아내의 진홍빛 슬리퍼'는 자신의 취족 폭력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나선 남편의 이야기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을 수 없는 쓸쓸한 우리네 인생살이기도 하다.

장편소설 위해 동남아 취재여행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의 옛 여자로부터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전화를 받은 '꽃집 아줌마' 강선덕의 특별한 하루' 속 주인공, 고교시절 자신을 운간한 남자와 '예외적 사랑을 나누는' '너무, 아름다운 예외' 속 주인공 등의 내면이 작가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흘러나온다. 작가의 입을 빌려서 “시시한 사람들의 시시한 삶” 이야기다. 303 짜리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송씨는 “최근 집필을 시작한 장편소설 취재 차 지난 2월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며 “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한 동안 글 쓰는 일에 다시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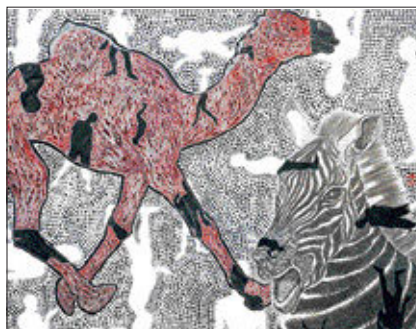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2 광주일보 제17466호 2006년 6월 6일 화요일

허진 교수 서울 월전미술관서 개인전

문명과 인간의 부조리

인간과 문명을 화두로 작업하고 있는 한국화가 허진 교수(전남대 미대)가 서울 월전미술관에서 '유목동물+인간-문명'을 주제로 7일부터 20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유목동물 인간'

허 교수는 호남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련의 고손자이자, 근대 남화의 대가 남종 허건의 장손으로 윤림산방 화백을 5대째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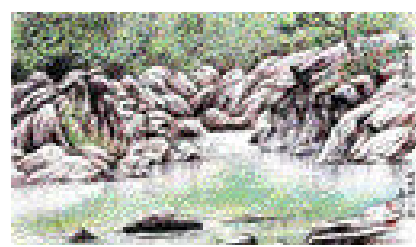
허 교수는 한지에 수묵 채색한 작품 23점을 통해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특히 그는 원시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얼룩말, 코끼리를 화폭에 전진 배치한 뒤 인간 군상을 흑·백으로 중첩하는 등 몽타주적 기법으로 문명과 인간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

허 교수는 81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유명렬씨 '정든 산하'展

11일까지 광주 상계 갤러리

한국화가 유명렬씨가 11일까지 상계 갤러리에서 '정든 산하'를 주제로 14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소장 변관식 선생에게 그림을 배운 유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국 산하를 답사, 화폭에 담은 실경산수 30여점을 선보인다.



'피아골 소견'

지리산과 설악산의 빼어난 산세와 4계절의 표정을 담은 작품과 해남 땅끝, 해금강 등 전국의 절경을 담아냈다. 그는 두터운 필선을 통해 사물과 풍경을 도드라지게 그려냄으로써 담박한 한국화의 질감에서 벗어나 생동하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유씨는 서울에대 미술부에서 수학한 뒤 아예아 국제미전, 한국현대미술작가 초대전 등에 참가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원로작가, 초대작가를 지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배우 4인방 뮤지컬계 접수

뮤지컬 '밴디트' 7월17일까지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명의 독일영화를 뮤지컬화한 공연기획사 레조크의 뮤지컬 '밴디트'는 소재인 허덕이는 한국 뮤지컬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뮤지컬로 평가된다. 여자 탈옥수 4명으로 구성된 록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의 주인공 강효상, 이영미, 김희원, 전혜선씨 등은 머리를 도리질치는 헤드 밴딩과 함께 방방 뜨는 열광적 연주모습이 영락없이 자유를 갈구하는 록그룹의 모습 그대로다. 강씨 등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진짜 록밴드 가수들이라고 해도 깜짝 속아넘어갈 만 했다.

소재난 허덕이는 한국 뮤지컬에 단비

이 작품의 원작은 1997년 제작된 같은 이름의 독일 영화다. 당시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10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그해 독일 최고의 영화상인 저먼 필름 어워드 음악부분을 수상하고, 음반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음악이 특히 뛰어나다.

탈옥수 4명으로 구성된 그룹 '밴디트'의 리드 보컬은 은행강도 출신의 루나. 애정결핍에 다혈질 폭력배다. 최근 '지킬 앤 하이드'에서 무시역으로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였던 이영미씨가 맡았다. 이씨는 짙은 톤의 목소리로 가슴 깊숙이 잡혀있는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 컷등을 시원하게 했다. 엠마는 드러머. 이들 중 가장 정성적인 여자다. 폭력을 피해 정당방위로 남자를 살해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 드러머가 없어 고민중인 '밴디트'에 합류, 음악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동을 잡아가는 역인데 이제 원로(?) 뮤지컬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강효상씨가 맡았다.

기타리스트 앤젤은 사기꾼 꽃병, 겁이 많고 맘이 약해 그룹의 탈출행각에 결정적 위기를 초래하는데 '헤드워크'에 이어 뮤지컬 무대가 두 번째인 새내기 전



혜선씨가 맡았다.

키보드 주자 마리는 더블 캐스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분위기가 있는 연기를 보여줬던 김희원씨와 뮤지컬계의 빅마마로 불리는 박준민씨가 맡았다.

獨 영화 원작...여 탈옥수 록밴드 이야기

이 작품은 '경찰의 날' 축하공연을 위해 호송되던 '밴디트'그룹이 성추행하는 경찰에 맞서 탈주하며 사건이 벌어진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전혀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이들의 탈출행각은 TV로 보도되고, 이를 이용해 약삭빠른 레코드 제작자는 이들이 수감 중 보내왔던 데모테이프를 음반을 만들어 발표, 선풍적 인기를 끈다. 이제 '밴디트'는 단순한 죄수들이 아니라 젊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우상으로 자리잡는다. 7월17일까지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충홀 02-545-7302~3. /김고우 공연웹사이트 papabon@naver.com

거문고 듀오 '동행'

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첫 공연



거문고 주자 서덕은(왼쪽) 유소희씨.

개인연주회나 국악 관현악단, 실내악단의 연주자 주축인 광주 국악계에 처음으로 '듀엣'이 등장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멤버인 거문고 주자 서덕은·유소희씨가 의기투합한 거문고 듀오 '동행(同行)'이 그 주인공.

'동행'은 가야금 등 다른 국악기에 비해 연주자와 향유 인구가 적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문고의 매력에 사 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결성했다. 7월 공연 역시, 관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을 선택했고, 신디사이저 등 양악기와도 협연도 시도했다. 연주곡목은 김영재 곡 '현림곡', 북한 음악인 김용실 곡 '출강' 등이며 '두 대의 10현 거문고'를 위한 금성(琴聲)에서는 정통 6줄이 아닌, 10줄 거문고 연주와 컴퓨터 음악을 접목, 색다른 시도를 했다. 이왕재씨의 사회로 김광숙·강숙향·방중서씨가 함께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p>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p> <p>하순 도곡역천 단지내 최고 상업 중인 무인텔 (최신시제, 북송구조) ·일 매출 250~300만 보좌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대 53평 건 268평 ·보 1억1천 / 월860만 층상 4기 5층 상가 ·대 53평 건 268평 ·보 1억 / 월160만 ·공시지가 당 788만</p> <p>쌍촌동 동림지구와 벼들마을 사이 ·4기 203㎡도로 점(경사중) ·140평 × 390만</p> <p>쌍촌동 광천교회 부근 ·어린아들 40평지 (8M 계획도로 인) ·530평 × 170만</p> <p>양동 상업지역 고급주택 ·4123평 단층상가 ·매매가 2억5천</p> <p>양정동 신동아와 대우 사이 ·대 3억2천만</p> <p>양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내지 ·라이프라이브러, 주유, 35M도로점 ·대 164평</p> <p>도산동 파랑새에식상 건너편 ·20M 도로점 ·270평 × 220만</p> <p>하순 영평리 전원주택지 ·대 333평 × 12만</p> <p>5층 상가건물 ·장동로부근 대지80평 건평470평 전원주택지 ·하순 남면 주민의 주민들 보이는 전원주택지 대지 1100평 × 10만</p>	<p>유성공인중개사 ☎(41)352-4545, 364-4545 (영성동 송원전대사거리)</p> <p>광천동개발지역</p> <p>주택상기등 물건다수보유</p> <p>010-4610-5631</p> <p>모텔급매</p> <p>객실 42개 최신시설 월매출 5천만원 용자 12억 매 25억 016-605-7000</p>	<p>LC타워(주) ☎(41)972-8004, 010-7154-6996 (천안지구)</p> <p>첨단지구내 최상의 위치 LC타워를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p> <p>◀각층분할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 신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 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 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p>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상무 우라병원에서 50m 지점)</p> <p>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p> <p>◀ 구합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 기도원 부지: 장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 장성 잔여면 도로에 접한 생산녹지-현금2억 ● 병원 신축부지: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p>◀ 팝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센타부지 광산구 우산동 대지 117평 평당220만원 20m 도로변 ● 상가부지 양정동 구학림리지구 아파트분양로 161평 평당450만원 ● 복구 용두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55만원 ● 광산구 삼도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 지하철 시정역부근 마복동 574평 평당400만원 40m 도로계획선에 저층 ●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마복동 화백간지 908평 상담후 결정 	<p>21세기부동산개발(주) ☎(41) 525-0021, 전철상담 011-812-3421</p> <p>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범원경매 -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p> <p>* 경매내찰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남 80m 도로변 임대 잘나가는 건물 지상층 지하2층 대지 177평 건평 300/최저가 15억 2. 원당지구 월가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181평 준공1년된 건물 건평 260/최저가 12억 3. 평동공단 공장용지 1300평 2층 공장건물 720평 건평 250/최저가 15억 4. 삼부지구 차평동 신축5층건물 대지128평 유적권 신고있음. 건평 212/최저가 12억 5. 하남 활곡동 기동, 서당, 한제호프 집 운영중 대지 70평 2층건물 내부 인테리어 완비. 건평 2억95천/최저가 1억9천 6. 풍향동 2층 고급주택 대지211평 2002년도 준공된 건물 건평 5억 5천/최저가 2억5천 7. 화정동 500평택지 한층 전래역시 장로 운영중 7층건물 대지300평 건평 360/최저가 15억 8. 하남공단 공장용지 600평 한층 2층 공장 건물있음. 건평 9억/최저가 5억 <p>AA급 깨끗한 길을 긴급 매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안로가리 주유소부 건물5층 대지717평 임대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적합. 동양지구 개발로도시 발전가능성이 높음지역 매매가 5억 3천만원(상당수익) 매매 2. 농성동 삼공회소 건물 2리모텔원료면 4층건물 대지 150평 건평 18억 건금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3. 원당동 원당동로 원당마을입구 대지50평 3층건물 건평2억 2억 건금매매가 4억5천 원료면 원료 시 임대수익노장 <p>병원, 학원, 상가등 신축부지 매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정동 사거리 지하철역 도로변 콘크리트 320평 긴급매매가 평당 600만원 2. 복구 용정지구 현대아파트 3차 앞 132평 평당 350만원 3. 온주거리의 수상복합아파트 신축 부지 1000평 광주대입구 남구 진월동 금호아파트와 평당 300만원 <p>상업중인 골포연습장 급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산구 철단지구 자연녹지 2200평 인도화공표연습장, 최신시설 완비, 최신시설소모비용 47억 주 인사업장 급매가 37억(월20%수수익이보장) <p>긴급 부동산 물건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당동 구호 아파트부지 1000평 대형 미트 복합신축건물평당 평당 7억2천 2. 광산구 우산동 증합거리부근 1000평 도로변 평당 100만원 3. 복구 지리동 증합거리부지 400평 원료면 평당 매매가 400만원 1000평 대형 평당 100만원 4. 화순 도곡 원천관공단지 건-원 환경사 5500평 매가 평당 1500만원 원천 대형기동식당(영업) 토지 5. 양정호기 내리다 보이는 원아 20,000평 매가 평당 1250만원, 원만한 경사. 장성동 국민관광단지내. 현금 투자적합 6. 광주대입구 도로변내지. 광주호기 내리다 보이는 원사적인 입지를 갖 손 토지 500평. 매가 평당 520만원. 전원주택-키네-기동식당-편식-전사대형시업등에 적합한 토지 7. 복구 용정동 도로변 내지. 생산녹지 1000평 신축도로로 평당, 창고, 원사적인 신축부지(매매) 4기 200평 콘크리트 매가 평당 1200만원(토지분할매매) 100만 8. 양정 화정-대리동7기2호 도로변 공평부지 1000평. 매가 평당 1500만원. 신축도로로부근. 대역면사무소앞. 원만한 경사에 토질과 주변환경이 수려한 지역임. 복합물류센터. 공장신축부지. 기동식당-키네-미니골프장-편식-전원주택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임. <p>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p> <p>센트럴웨딩컨벤션 www.센트럴시티광주.co.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세미나,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소- ● 예약접수 ☎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 	<p>대인동삼일부동산 ☎(41)211-1140, 010-8210-602-2332 (광주영성 신봉동, 대인동 소재사거리-3번)</p> <p>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p> <p>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motel·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p> <p>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p> <p>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p>
---	--	---	---	---	---